

비관주의의 조직

이문회우 벤야민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Belief in a Just World)

- 심리학자 Melvin Lerner (1966년)의 실험

-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정의롭고 공평한 곳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타고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반대되는 너무나 확연한 불의나 부당함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잔인한 고문을 끝내거나, 아픈 환자를 낫게 하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죄수를 석방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우리의 그러한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희생자가 그러한 일을 당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 Melvin J. Lern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1980.
- Claire Andre and Manuel Velasquez. "The Just World Theory", Issues in Ethics 3:2, 1990.
- Vicky M. Wilkins and Jeffrey B. Wenger. "Belief in a Just World and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Policy Studies Journal 42:3, 2014.
- Nicholas Hune-Brown. "The Monstrous Cruelty of a Just World", Hazlitt, 2015.1.22.
- Oliver Burkeman. "Believing that life is fair might make you a terrible person", The Guardian, 2015.2.3.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 가난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자신이 노력을 안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 아픈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 부부 폭력의 피해자 역시 본인이 잘못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 ...

- 이 세상에는 도덕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것이 우주적인 정의를 주재하고 있다는 믿음

신화적 질서 mythische Ordnung

- 'Schuldzusammenhang' (빚/죄의 연관)이 지배하는 질서
- “지금까지 이들 도덕의 계보학자들은 예를들어 '죄'(Schuld)라는 저 도덕의 주요 개념이 '부채'(Schulden)라는 극히 물질적인 개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막연하나마 생각해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형벌이 일종의 보복으로 의지의 자유와 부자유에 관한 어떤 전제와도 전혀 무관하게 발전해왔다는 것을 막연하나마 생각해본 적이 있었던가?”
(니체, 도덕의 계보)

- “도덕군자들이여, 너희는 아직도 금전상이 대가를 바라고 있구나! 너희는 덕에 대한 대가로 보답을,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대가로 천국을, 그리고 오늘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가르쳐 보상을 해 줄 자도, 계산을 해 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화가 나 있는가?”
- “사람들이 사물의 바탕에다, 심지어는 너희의 바탕에 까지 있지도 않은 보상과 형벌이라는 것을 심어놓았구나!” (니체, 차라투스트라)

- 근원적 원죄
- 종교적 빚짐
- 보복/보상
- 죄와 벌
- 법적 질서

신화적 폭력

- “모든 영역에서 신화에 신이 대립하듯이 신화적 폭력에도 신적 폭력이 대립한다. 신화적 폭력은 모든 점에서 신적 폭력에 대립물이다. 신화적 폭력이 법을 세운다면(rechtsetzend) 신적 폭력은 법을 없애버리며(vernichtend), 신화적 폭력이 경계를 설정한다면 신적 폭력은 그 경계를 없애버린다. 신화적 폭력이 빚지게 하면서(verschuldend) 동시에 죄를 짓게 한다면(sühnend) 신적 폭력은 죄를 없애며(entsühnend), 신화적 폭력이 위협하는(drohend) 식이라면 신적 폭력은 내리치는 식이다. 신화적 폭력이 피를 흘리게 한다면(blutig) 신적 폭력은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치사적(letal)이다.” (폭력비판을 위하여)

비관주의 PESSIMISMUS

악의 정당화

- '우연 Zufall, 불확실성 Ungewisse, 갑작성 Plötzliche'" 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일종의 계약을 맺음.

→ '악'을 신격화

→ '악'에 이성적, 계획적 성격을 부여

→ 악을 죄에 대한 대가나 처벌로 수용

강한자의 비관주의 Pessimismus der Stärke

- 우연, 불확실성, 갑작성을 삶의 출발점으로 긍정하는 것
- “피로하고 허약해진 본능, 쇠퇴, 몰락, 실패의 신호”로서의 비관주의가 아닌, “강한자의 비관주의”.
- ‘형이상학적 위안’ 대신, ‘현세적 위안 *diesseitiger Trost*’을 주는 비관주의,
- “선과 악을 넘어서 있는 비관주의”
- (니체, 비극의 탄생)

- “기독교적 교리는 오로지 도덕적일 뿐이며 도덕적이고자 한다. 그리고 절대적 척도로써, 예를들면 그것이 주장하는 신의 진실성으로써 예술을, 모든 예술을 거짓의 영역으로 추방한다. 즉, 부정하고, 저주하고, 유죄판결을 내린다. 그것이 실질적이고자 하는 한 예술에 대해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그와 같은 종류의 사고방식과 가치평가 방식의 배후에서 나는 오래 전부터 또한 삶에 적대적인 것과 원한으로 가득 차고 복수심에 불타는 삶에 대한 적의를 느꼈다. 왜냐하면 삶은 가상, 예술, 기만, 광학, 관점적인 것과 오류의 필연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삶의 구토와 권태였다. 이것은 ‘다른’ 혹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으로 단지 위장되고, 은폐되고, 치장되었을 뿐이다. ‘세계’에 대한 증오, 감정에 대한 저주, 아름다움과 감성에 대한 두려움은 현세를 보다 잘 비방하기 위하여 내세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허무, 종말, 휴식, ‘안식일 중의 안식일’에 대한 열망이다. -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오직 도덕적 가치만을 타당한 것으로 통용시키려는 기독교의 무조건적 의지와 마찬가지로, “몰락에의 의지”의 모든 가능한 형식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형식으로 여겨지며, 적어도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질병, 피로, 불만, 고갈, 가난의 표시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도덕(특히 기독교적인, 다시말해 무조건적인 도덕) 앞에서 삶은, 삶이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까닭에, 늘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삶은 경멸과 영원한 부정의 무게에 짓눌려 갈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져야만 한다.” (니체, 비극의 탄생)

- “지난날을 구제하고 일체의 ‘그랬었다’를 ‘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so wollte ich es’ 로 전환하는 것, 내게는 비로소 그것이 구제다! 의지, 그것은 해방을 가져오는 자의 이름이며 기쁨을 가져오는 자의 이름이다.”

(니체, 차라투스트라)

조르주 소렐, <폭력에 관한 성찰>

낙관론의 근원

- “물질문명이 이룩한 거대한 성공은 행복이란 누구에게나 가까운 미래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현대 세계의 주역들은 경제적 힘들에 의해서 낙관론의 길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낙관론 비판

- “사업에 실패하고 정당한 야망이 꺾이고 실연에 우는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주변 사람들의 악의, 사회의 어리석음, 운명의 맹목성 따위에 맞선 격렬한 반항의 형태로 표출할 때, 우리는 그를 비관론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 행복이 찾아오는 일반적 순서와는 달리 왜 자기에게만 불행히 찾아오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능력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낙담한 낙관론자**를 보아야 합니다.”

- “정치에서 낙관론자는 무분별하고 심지어 위험한 인물”
- 낙관론자는 “흔히 정치조직과 정부의 인적 구성에서의 약간의 개혁들만으로...현대 세계의 병폐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운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료들이 권좌에 오르자마자, 그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고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며 사태의 흐름에 따라 주어지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만 한다고 선언”한다.
- “낙관론은 너무나도 쉽사리 혁명적 분노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회 평화주의로 넘어가는 것”이다. 만일 그의 이념이 실패한다면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사회의 변혁이 자기가 애당초 생각한 것만큼 쉽사리 실현되지 않는다고 인정해 버리고....사태의 추이를 역사적 필연으로 설명하기는커녕, 동시대인의 허물 탓으로 돌려 버린다”
- “자신들이 꿈꾸던 황금시대를 동포들에게 열어주겠다는 가장 강렬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 인간의 불행에 대해 가장 깊은 연민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보편적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열망을 가졌던 바로 그만큼 더”, 예를 들어 공포정치 때에 그랬던 것처럼, “그만큼 더 가혹한 태도를 취했다”

진정한 비관론

- “인류의 불행” : 비관론은 인간이 “매복해 있다가 뛰쳐나와 우리를 엄습하고 언제든지 집어삼키려 드는 고약한 힘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계는,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련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순박한 자부심에 그토록 상처를 입히는 불행의 법칙, 숙명의 법칙을 탐색”해야 한다.

- “사회적 결정론” : “비관론자는 사회적 조건들을 필연성을 지닌 어떤 철칙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합체로서 주어져 있으며 전체를 건드리는 어떤 파국에 의해서만 소실되는 그러한 체계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사회가 겪는 모든 화근의 책임을 몇몇 해로운 인물들에게만 지운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예기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자 어찌할 바 모르고 찢찢매는 낙관론자의 피비린내 나는 광기를 비관론자는 결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현재의 이기주의자들의 목을 자르는 방식으로 미래의 세대들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 “해방으로의 행진을 구상하는 방식” :
“동료 집단 모두와 함께 힘을 합해서
자신의 불행과 숙명이라는 이 압제자들을
끝장내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비관주의의 조직

- “사회주의자는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의, 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 를, 모두가 ‘마치 천사들인 듯이’ 행동하고, 각자 ‘마치 부유한 듯이’ 많이 갖고, 또 각자 ‘자유스러운 듯이’ 사는 데서 본다.” (초현실주의)
- “좌파 시민계급”은, “아이나 손자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하고”, “낙관주의라는 이미지만으로 ‘시를 지으’면서, 딜레탕트적 낙관주의에 기반 해 정치를 도덕과 ‘바꿔치기’ 하고, 정치적 실천을 ‘이상주의적 도덕’과 결부시키고 있었다.

- “비관주의를 조직한다는 것은 정치에서도
도덕적 메타포를 쫓아내는 것이고 정치적
행동의 공간 속에서 100퍼센트의 이미지
공간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초현실주의)

비관주의와 구원에의 믿음

- “메시아가 비로소 모든 역사적 사건을 완성시킨다. 그 역사적 사건이 메시아적인 것에 대해 갖는 관계를 메시아가 비로소 구원하고, 완성하고,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은 그 스스로 메시아적인 것과 관계 맺기를 바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왕국은 역사적 동력의 목적이 아니다. 신의 왕국은 목표로 설정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종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의 질서는 신의 왕국에 대한 생각에 구축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神政, Theokratie)은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오직 종교적 의미만을 갖는다.” (신학-정치학 단편)

- “구원은 세계 내적 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 구원은 오히려 역사에 대한 초월성의 침입이다. 그를 통해 역사 자체가 몰락하는,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그를 비추는 빛을 접하기에 역사가 몰락 속에서 스스로를 변신시키는, 그러한 침입이다.” (게르솜 솔렘)

- “세속적인 것의 질서는 행복의 이념에 정향해야 한다. 이 질서가 메시아적인 것과 맺는 관계는 역사철학의 본질적 가르침 중 하나이다. 이 관계로부터 신비주의적 역사이해의 조건이 정해지는데, 그 문제는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해볼 수 있다. 한 화살의 방향이 세속적인 것의 동력을 작동시키는 목표를 나타내고, 다른 화살이 메시아적 강렬함을 나타낸다면, 자유로운 인류의 행복 추구는 당연하게도 저 메시아적 방향에서 멀어지려고 애를 쓰겠지만, 자신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의 힘이 그 반대방향으로 향하는 다른 힘을 촉진시킬 수 있듯, 세속적인 것의 질서도 메시아 나라의 도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 세속적인 것은 이 [메시아] 나라의 범주는 아니지만, 지극히 조용하게 메시아 나라가 다가옴의 한 범주, 그것도 가장 잘 들어맞는 범주이다. 모든 세속적인 것은 행복 속에서 자신의 몰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직 행복 속에서만 몰락을 찾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신학-정치적 단편)

- “『천체에 의한 영원』 중에서 블랑키는 진보에 대한 믿음에 어떤 증오도 보이지 않았으나, 조용히 거기에 조소를 보내며 그를 건너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정치적 신조를 배신했다고는 할 수 없다. 블랑끼 같은 직업혁명가의 활동은 진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당대의 불의를 없애려는 단호한 결의만을 전제한다. 계급적 증오가 가진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치적 가치는 혁명적 계급을 진보에 관한 온갖 공론들에 대한 건강한 무관심으로 무장시키는 데 있다. 만연한 불의에 대한 분노(Empörung)로부터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삶을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인간 존엄성에 어울리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에 어울리는 행동이다. 동시에 인간다운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그때마다 다가오는 파국으로부터 인류를 끌어내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이러한 분노와 함께 간다. 블랑키가 그러했다. 그는 ‘나중에’ 올 것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늘 거부하였다.” GS V-1, 428 면. [J 61a, 3]

- “행복은 행복한 자를 운명과 자기 자신의 망의 연쇄로부터 풀어내는 것이다. (...) 그렇기에 행복과 축복(Seligkeit)은 빛없음(Unschuld)과 마찬가지로 운명의 영역에서의 벗어남을 이끈다.” GS II-1, 174면.